

부여지역의 고대문화

A Brief Survey of the Ancient Culture in Puyo

이영훈/ 국립부여박물관장
by Yi Young-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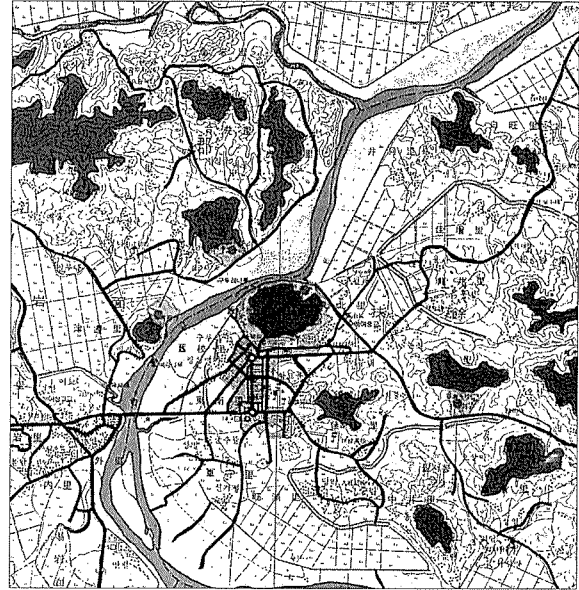
1. 선사시대의 부여

부여지역에서는 구석기시대나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일부 발견되고 있으나, 아직 유적이 발굴조사된 적은 없어서 확실한 문화상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 단계인 청동기시대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유적이 발굴조사되어 이 시대의 문화상이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져 있다.

청동기시대인들은 나즈막한 구릉위에 수십호씩 마을을 이루며 살았는데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 송국리유적(松菊里遺蹟)이다. 이 유적은 표고 40여 m 정도의 알은 아산에 넓게 자리하고 있는데, 주변에는 내가 흐르고 넓은 들이 있어 농사짓기에 알맞아 마을이 자리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이 유적에서 조사된 움집터(竪穴住居址)들은 평면상 방형집터와 원형집터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에서 후자로 변천해 나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방형집터는 벽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구멍이 있어 맞배집으로 복원할 수 있다. 원형집터의 경우는 바닥 중앙부에 판 타원형의 구멍이 안에 중심 기둥을 세우기 위한 구멍 2개가 있으며 벽쪽으로 치우친 사방에 1개씩 모두 4개의 기둥구멍이 있어 전체적으로 원추형의 집으로 복원된다. 이런 형식의 집터는 전남지방과 경남지방에서도 확인되고, 멀리 일본에



부여시의 도시 및 지형현황(자료제공: 이재훈)

서도 보이고 있어 송국리유적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화가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송국리유적에서는 마을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도 확인되었다. 목책(木柵)과 환호(環濠)시설이 그것이다. 목책은 지름 30cm 정도의 나무를 180~240cm 간격으로 세워 울타리를 만든 것으로 방형의 집터들을 감싸고 있었다. 환호는 후대의 해자(壕字)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단면이 V자형에 가까운데 너비 270~380cm, 깊이 110cm 정도이다. 이러한 방어시설은 당시 마을의 규모를 짐작케 해주며 나아가서 마을과 마을 사이의 관계 등 사회구조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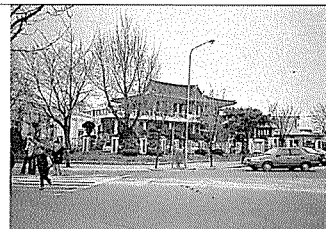
초기 철기시대(기원전 3세기~기원전후)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무덤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무덤에는 동검(銅劍)·꺾창(銅戈)·구리거울(銅鏡)·동탁(銅鐸) 따위의 청동기와 함께 쇠갈과 쇠도끼 따위의 철기류 및 유리대롱옥이 부장되어 부여지역에서 발달한 청동기와 철기 및 유리 제작기술 등 당시의 독특한 문화양상을 보여준다.



부여를 대표하는 경관인 백미강 낙화암(스케치: 박병주)



부여 도서관



부여읍사무소

2. 백제시대의 부여

알다시피 부여(사비)는 538년부터 660년까지 120여년간 백제의 도읍지였다.

백제가 도읍을 공주에서 부여로 옮긴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공주지역의 공간 협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다.

이 천도 계획은 동성왕(東城王) 때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성왕(聖王) 16년(538)에 완료되었다. 백제는 부여의 진산(鎭山)인 부소산 남쪽에 왕궁을 짓고 외곽에 길이가 약 8km에 이르는 나성(羅城)을 쌓아 본격적인 도성(都城)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이 왕도는 지역에 따라 5부(部)로 나누어졌고 각 부는 다시 5항(巷)으로 나누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사비 시기는 문화적으로도 가장 융성하였던 때로서 특히 불교문화가 발달하여 정림사(定林寺)를 비롯한 많은 절들이 나성 안팎에 세워졌다. 또한 나성 밖에는 왕릉을 비롯한 고분들이 조성되었다.

근년에 이르러 이러한 사비시기 도성의 모습을 밝히고자 하는 고고학적인 발굴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먼저 왕궁터를 찾는 발굴조사가 부여읍 관북리 일원에서 실시되었는데, 당시의 건물터·축대·도로·연못 등의 유구와 함께 금속품과 토기류 등 수준높은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사비 시기의 왕궁이 이 곳에 자리했음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여문화재연구소 앞 지역에서 발굴조사된 백제시대의 도로 유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는 동서, 남북으로 교차하는 일부분이 발견되었는데 너비는 남북방향의 대로가 8.9m, 동서방향의 소로가 3.9m로서 각각의 좌우에는 배수구가 만들어져 있었다.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는 판돌로 조립된 암거시설도 있었다.

이러한 도로 유구 등의 자료로 볼 때 왕도에서 5부 5항제에 의한 조리제(條里制)가 실시되었던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아직 조리제에 의한 도시공간구획의 전모를 밝히는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최소한 현재의 부여읍 관북리와 쌍북리 및 동남리(정림사터 뒷편) 일대에는 조리제에 의한 도시계획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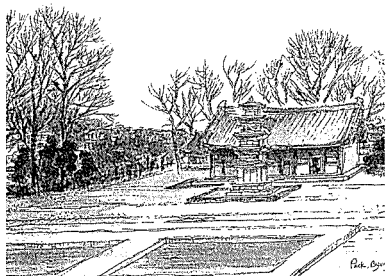
그 일환으로 앞서 이야기한 도로가 개설되었던 것이며, 관북리와 쌍북리에 있는 현재의 도로시설의 일부는 이미 백제시대부터 있었던 길을 이용한 것임이 밝혀졌다.

한편 부여지역에서 발견된 백제시대의 건물터는 궁궐터·절터·움집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궁궐터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부여문화재연구소가 있는 관북리 일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이 곳에서 궁궐의 전모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내성(內城)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일곽이 확인되었다. 이 건물들은 높이 1m가 넘는 성토층위에 지어졌는데 기단은 와적(瓦積) 또는 화강암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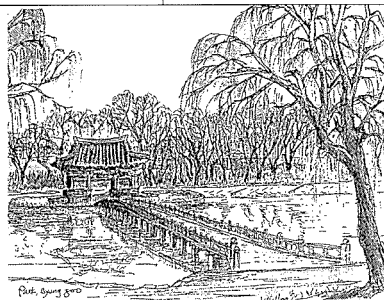
대표적인 절터(寺址)로는 군수리절터·용정리절터·정림사터·능산리절터 등을 들 수 있다. 이 절들은 1탑1금당식으로 남북자오선상에 세워졌으며, 용정리절터와 능산리절터는 나성 밖의 절이며 군수리절터와 정림사는 나성 안에 있는 절이다. 정림사를 제외한 나머지 절들에는 목탑이 세워졌으며 모두 6세기 중엽이라는 연대를 갖는다. 이로 보아 6세기 중엽에는 불사를 여러 곳에 세울 정도로 국가경영이 정상 궤도에 올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금동대항로가 출토되어 유명해진 능산리절터는 567년에 창건한 성왕(聖王)의 원찰(願刹)로서 강당(講堂)의 구조가 집안에 있는 고구려시대의 동대자유적(東臺子遺蹟)과 비슷하여 양자간의 문화교류를 엿볼 수 있으며, 백제시대의 것으로는 처음으로 다리(橋)가 발견되어 주목된다.

움집터로는 부소산성내 반월루부근 유적과 정림사 강당터 동쪽 부근 유적을 들 수 있다. 부소산성 반월루부근 움집은 산성 내부에 있던 군사시설의 일부로 추정되고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4m 정도인 네모난 집으로 아궁이와 구들시설이 있었다. 정림사 강당터 동쪽 부근 움집은 내부에 아궁이와 구들시설은 없었지만 Y자로 된 배수로 시설이 있었다.

부여지역의 백제고분으로는 석실분(石室墳)을 비롯하여 옹관묘(甕棺墓)와 화장묘(火葬墓) 등을 들 수 있다. 화장묘를 제외한 무덤은 나성 밖에 조성하는 것을 엄격하게 지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왕릉(聖王陵)이 포함된 능산리고분



백제 왕도 부여의 중심사찰이었던 정림사터(스케치: 박병주)



백제 별궁의 연못 가운데 포용정이 보인다.(스케치: 박병주)



부여 청소년 수련관

군이 나성에 인접된 외곽에 자리한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백제는 '산성의 나라'라고 부를 만큼 많은 산성을 쌓았다. 산성은 석축과 토축의 두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성벽은 판축기법으로 쌓은 것이 많아 주목된다. 부여를 주변만 해도 10여개의 산성이 있으며 이들 산성은 모두 부소산성에 그 거점을 두고 있다.

3. 오늘의 부여

왜 부여를 이야기하는가. 왜 사람들은 지방의 조그마한 한읍(閑邑)에 지나지 않는 부여를 찾아오는가. 왜 부여에 와 백제를 회고하고 옛 왕국의영광을 회상하는가. 그것은 백제의 수도로서 백제의 문화유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백제 시대 이래의 자연환경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원형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부여는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들의 개발욕구는 부여라고 예외가 아닌 것이다. 건축 등 각종의 공사로 인해 알게 모르게 많은 문화유산이 인멸되어 가고 있으며 자연환경은 변형, 훼손되어가고 있다. 부여다움을 잃어 가고 더 이상 다른 도시와 다를 바가 없이 되어가고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5층 이상의 아파트가 없는 도시였지만 머지않아 더 높은 아파트가 괴물처럼 들어 설 것으로 우려된다.

더 이상 부여가 부여답지 못하다면 더 이상 부여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 백제의 문화유산을 개발의 이름으로 없앤다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백제를 없애며 부여가 개발되어서는 아니된다. 백제 없는 부여는 정신이 없는 부여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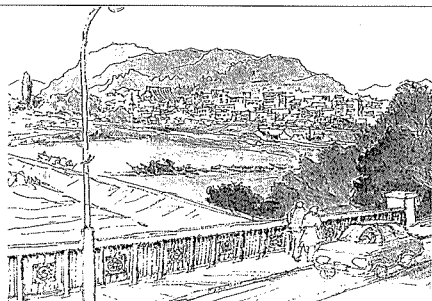
삼국사기는 백제의 건축을 평하여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하지 않았다(儉而不陋 華而不侈)고 하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부여에서 일으키고 있는 건축은 어떠하다 하겠는가. 또한 건축은 환경을 생각할진대 오늘날의 건축은 과연 자연환경을 진정 고려하는가. 백제의 지형은 거의 그대로인데 우리는 너무 오만하지 않은가. 오늘날 우리의 건축정신

은 백제인의 건축정신과 얼마만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백제도 살리며 오늘날의 부여도 살리는 길은 다름 아니다. 신부여(新扶餘)를 만드는 일이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떠나야 한다. 그리하여 지금의 부여는 백제 때로 돌려 놓자. 그래야 백제도 살고 부여도 아니 부여 사람도 산다. 지금의 부여에서 선조의 흔적을 뭉개고 앉아 있으면 절대로 희망이 없다. 도시기능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 50만도시 딱딱하면 짓는 괴력(?)을 지닌 우리가 아닌가. 3만 인구의 도시 하나 만들기는 숙된 말로 누워 떡먹기일 것이다. 왜 이것을 못하는가.

부여읍내의 중심에는 저 유명한 정림사터 오층석탑이 있다. 이 탑은 마치 부여의 벤치마크와 같은 구실을 하듯 당당하게 서 있다. 백제인이 짓고 고려와 조선시대의 선조들이 잘 남겨 우리에게 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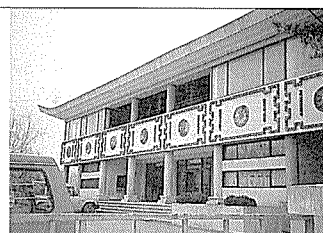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천수백년을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을 지었는가. 선조가 물려준 것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부실공사로 인해 무너졌거나 거추장스럽다고 없애버리지 않았는가. 돈에 눈이 멀어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지 않았는가. 또한 치욕적인 것이라 하여 부수어 버리지 않았는가. 일부에서 건물은 사라져도 역사는 남는다고 아우성도 쳐보았지만 역시 우리는 철저히 부수어 버렸다. 건물이 남아야 역사도 남는다. 눈에 보아야 추체험(追體驗)하면서 역사를 뒤돌아 보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남기자, 그리고 터고(據古)하자 그리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자.



백제교에서 본 부여 시가지, 뒤에 보이는 산이 부소산(스케치: 박병주)



부여 초입 아치



부여중학교 체육관